

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대응 강화

김제시는 지난 2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과 함께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와 용전마을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농촌진흥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시의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활동 상황과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용전마을회관에서는 예방요원들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한 농촌인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를 주제로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나홀로 작업 자제 등 농작업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예방용품을 배부하며 안전의식 확산에 나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상봉모터스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2일 상봉모터스에서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능력 향상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70%를 차지하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진행됐으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안전교육 시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최근 사업장 내 흡연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 진압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초기 화재 대응요령을 교육했으며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을 함께 교육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 체감 실질적 변화 완성”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 9기 핵심 비전 발표... 미래산업 육성 등 '속도'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 운영 방향과 민선 9기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정성주 시장은 “민선 8기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김제의 가능성과 지력을 하나씩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민선 9기는 그동안 쌓아 올린 기반 위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김제시는 역대 최초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확보했으며, 통합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 운영 방향과 민선 9기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부 개발 가속화로 김제를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해양항만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구정책과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신주조리원 설치, 청년 성장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근로자 든든한 한 끼 지원 등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 농업인 양성 맞춤형 영농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1천 명을 육성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서 김제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중심 시정 실현을 위해 '우리 동네 희망설계 플랜'을 새롭게 도입해 시민이 직접 지역 발전계획 수

립에 참여하는 주민 주권 시대를 열고, 교육·복지·문화관광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여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 역시 시민”이라며, “민선 9기의 변화와 성장은 시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지혜, 그리고 언론의 건강한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를 끝까지 믿고 따뜻한 결을 내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하며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 농산물 가치 담은 '건강한 식탁'

김제시, 우리쌀·로컬푸드 활용 '2026년 식생활교육' 추진

김제시는 우리쌀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김제시 식생활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 활용 전통떡 만들기, 로컬푸드 활용 음식 만들기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관내 영·유아 및 시민 등 총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쌀 소비촉진 식생활교육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으로 8일부터 23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쌀을 활용한 전통떡인 꽃산병 만들기 체험을 통해 쌀의 소중함과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식생활교육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로 △파프리카 컵 리조또, △치킨 토마토 토마토 랍, △감자 오믈렛 등 다양한 음식 만들기를 실습을 통해 로컬푸드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익히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건강한 삶은 우리 땅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시작된다”며, “로컬푸드와 우리쌀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3일 완주군은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행정 관계자 연구회 회원, 교육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완성된 완주 전통주 시제품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완주 전통주 개발 첫 결실

군, 딸기·생강·꽃감 활용 전통주·와인 12종 첫 공개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전통주 개발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행정 관계자, 연구회 회원,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완성된 완주 전통주 시제품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시음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완주군 전통주 제품개발 및 조직화 교육'을 통해 완주군 공동체(품목농업인연구회, 완주꽃감연합회, 구이리농센터) 교육생 15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시제품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완주의 대표 농

산물인 딸기, 생강, 고구마, 복숭아, 감초, 꽃감, 포도 등 원물의 특성을 살린 총 12종의 시제품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대중적인 탁주는 물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와인, 그리고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 증류주와 리큐르 등 다채로운 주류가 소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완주 원물 고유의 맛과 향이 은은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완성도가 높아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군은 이번 시음 평가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보완의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 중 2차 시음회를 개최해 완성도를 높인 뒤, 본격적인 상품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캐나다 탐방한다

아동참여예산 수학여행 지원... 밴쿠버·로키산맥 일대 방문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현정, 이하 완주꿈드림)는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캐나다 국제교류 프로젝트 '로키비키(RockyViki)'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캐나다 밴쿠버와 코퀴틀람, 로키산맥 일대에서 진행되며 학교 밖 청소년 3명과 지도자 4명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완주군 아동참여예산 제안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완주꿈드림은 여행이 청소년의 성장과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체험에 그치지 않는 '성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여행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과 자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밴쿠버와 코퀴틀람에서는 YMCA 청소년시설 방문, 지역사회 탐방, 현지 청

년 및 교민과의 만남 공공시설 체험 등을 통해 캐나다의 청소년 지원체계와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로키산맥에서는 자연 속 체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고전 읽기와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함께 걷고 생활하며 자연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진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출국에 앞서 영어 원서 읽기, 걷기 실천, 기록 활동 등 사전 준비 과정을 진행했으며, 현지에서도 매일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